

1년보다 긴 일주일...수능 무사히 끝나 안도

광주·전남 곳곳 응원전 펼쳐 “지진 영향 없어 천만다행” 시험장 착각·지각 수험생들 경찰·119 도움 받고 “휴~”

사상 초유 일주일 연기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포함 지진과 그 여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장 속에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은 출가분한 마음으로 학부모들과 부둥켜 안은 채 떨어질 줄 몰랐다. 학부모들도 시험이 별 탈 없이 진행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3일 시험이 종료된 오후 5시40분께 광주·전남지역 고사장 주변은 수험생들을 기다리는 부모들로 붐볐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수피아여고 앞에서 시험을 마친 딸과 만난 한 학부모는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지난 일주일의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었다”며 “무엇보다 시험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고 딸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전남지역 고사장 주변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제2지구 제30시험장인 광주시 북구 경신여고 주변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고교 1~2학년 학생 30여명이 자리를 잡고 ‘3학년 재수 없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3학년 선배들을 응원했다. 교사 10여명도 수험생들을 한명 한명 안아주며 격려했다. 같은 시간 제62지구 제33시험장인 광주시 서구 광주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교사, 학생 20여명이 엿과 초콜릿을 나눠주며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서강고 박재희(지리 담당) 교사는 “최근에는 시끄러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조용히 격려하는 편이다”며 “제자들이 긴장하지



마음부터 가다듬고 고3 수험생들이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않고 제 실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지각한 수험생들은 119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이날 오전 7시47분께 북구 문흥동에 거주하는 황모(54)씨는 다급하게 경찰을 찾았다. 아들이 수험표를 집에 놔두고 간 것이다. 문정여고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은 2분 만에 황씨를 태우고 북구 삼각동 고교고등학교까지 역주행까지 감행하며 4km를 7분 만에 돌고, 입실 마감시간 전 수험표를 전달할 수 있었다.

오전 8시13분께 송모(18)군은 시험장인

서구 서석고를 남구 석산고로 착각하고 잘못 찾아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재수생 이모(22)씨도 오전 8시3분께 남구 인성고등학교 앞에서 북구 광주일고로 가던 중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경찰 순찰차를 타고 8시10분까지 입실할 수 있었다.

오전 7시40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 버스정류장에서 김모 양이 “수험표를 찾다가 버스 시간을 놓쳤다”며 도움을 요청, 순찰차를 타고 무안고까지 이동했다.

오전 6시43분께에는 순천시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최모(18)군이 구급차를 타고 광양고 시험장에 입실했다.

이날 오전 8시 자녀가 도시락을 깜박하

고 챙겨가지 않았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남구 대성여고에서 동구 전남여고까지 순찰차로 도시락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소방의 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43명이었다.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능 100일 기도 회향식’이 진행됐다. 지난 8월9일부터 자녀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100일 기도에 들어갔던 학부모들은 예배실에서 자녀 사진과 수능 기도 100일 발원문을 펼치고 염불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관급자재 납품 알선 돈 챙긴 ‘마당밭 브로커들’ 딱 걸렸네

계약금액의 10~25% 받아 광주지검 9명 구속·2명 입건 연계된 공무원 추가수사 방침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A(52)씨는 ‘마당밭’로 통한다. 평소 지역 내 공무원들과 친목 모임을 할 정도로 두터운 인맥을 자랑한다.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준 덕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A씨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이 같은 화려한 인맥을 기반으로 영업대리점을 차린 뒤 사실상 관급자재 납품업자를 상대로 브로커 활동에 나섰다.

A씨는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탁해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계약금액의 10~25%를 챙겼고, 실제 해당 관급자재 납품을 성사시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대리점에서 물품판매위탁 계약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교묘하게 합법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A씨의 납품비리를 적발하고, 구속기소했다.

A씨처럼 광주·전남에서 관급계약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른바 ‘관급 비리 브로커’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브로커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100일 기도에 들어갔던 학부모들은 예배실에서 자녀 사진과 수능 기도 100일 발원문을 펼치고 염불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반호사범 위반 등 혐의로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4000만~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군정, 학교에 관급자

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10~25%를 챙겼다.

브로커들은 자치단체 발주 납품계약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제3차 단계계약’의 경우 각 기관 담당공무원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서 입찰 절차 없이 제품을 선택하면 구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노려 로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자치단체는 순천시, 해남·보성·곡성·영암·담양·고흥군, 경남 마산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자치단체이며,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도 브로커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특히 사이며 기자인 B씨는 한 때 모 지역 신문사 교육담당을 했던 경력을 앞세워 광주시교육청 등을 드나들며, 교육청 공무원, 교직원과 친분을 쌓고 이를 통해 관급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관급자재업자들은 브로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미리 공급가액에 부풀린 뒤 ‘단가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손해없이 이익을 챙겼다. 결국 형세만 남비된 셈이다.

관급자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급계약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때문에 계약금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가액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파행 강관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을 했는데, 담당공무원과 얼굴을 익히는데만 1년이 걸렸으며 겨우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고 한다.

특히 관급공사 시공업체마저도 발주처인 자치단체에 자신들이 필요한 특정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뒤,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브로커를 찾아가 영업을 부탁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검찰은 브로커들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또 다른 브로커들의 범죄 및 연계된 공무원들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증죄 유죄 판결 담양군수 부인 “억울하다” 항소

공무원 뇌물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군수 부인이 “억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최형식 담양군수 부인 고모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최근 즉시 항소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관사에서 2000만원의 저에게 주려다 틀려받은 혐의로 구속된(담양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A씨를 관사에서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을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A씨가 ‘관사’에서 돈을 교부하려다 틀려받았다고 해서 제3차 뇌물교부죄로 처벌했던 검찰이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A씨와 만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제가)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감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 아내 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거액 공천 현금’ 박준영 의원 측근 징역 1년으로 감형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서 구속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의원에 게 거액의 공천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5)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줄여 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 결정은 취소돼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여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 의원 측에 건넨 돈이 공천 대가 아니라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김씨가 신민당이나 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작년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났다.

한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해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만취 40대남, 길 가던 10대에게 다짜고짜 손도끼 던져



○~40대 남성이 만취해 길가던 10대 청소년에게 “뭘 봐?”라고 소리친 뒤 손도끼를 던졌다가 범행했다. ○~대전지법(민정철 부장판사)은 지난 7월15일 밤 11시25분께 충남 금산군 한 인도를 건넌 B(18)양에게 소리 지른 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35cm 길이 손도끼를 꺼내 던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집

행 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92%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술에 취해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는데, 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

/연합뉴스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



H 010-9229-3530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062-5 3 1-3530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암동·소룡호빌 / 주월동·성관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 문성동·안석동·법원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지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죽식물,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마트 / 서양동·아름다운고교주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해가온에너지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